도하아시안게임 한달 앞으로

4 광주·전남 유망주들

〈육상 김덕현〉

〈수영 한규철〉

〈수영 이지은〉

〈보디빌딩 김명훈〉

김덕현, 세단뛰기 아시아新 도전

승마 최준상·수영 한규철 등 '금' 기대

총 45명 출전…"고향민들 성원에 보답"

승마 마장마술 최준상(광주시체육회·삼성전자승마단), 육상 110m허들 박태경(광주시청), 육상 세단뛰기 김덕현(조선대), 보디빌딩 90㎏ 김명훈(광주시청), 우슈 태극권전능 장용호(광주시체육회),양궁 단체전 이특영(광주체고), 수영 개인혼영 200·400m 한규철(전남수영연맹), 수영 여 자유형 200m 이지은(전남제일고 2).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될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기상을 드높이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속선수들이다.

김덕현은 아시아 무대를 벗어날 수 있는 세단뛰기 최강자. 지난 10월 전국체전 세단뛰기에서 17m07을 뛰어 '마의 17m' 벽을 뛰어넘으며 대회 MVP를 거머쥐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16m80 대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돼 자신의 기록만 뛰면 금메달은 떼논 당상이다.

한규철은 남자 개인혼영 200·4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역시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 있어 금빛 역영을 기대하고 있다.

탈모장애를 딛고 일어선 이지은은 여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선수단에 일조 한다는 각오다. 뛰어난 체력과 승부욕이 남달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메달 색깔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체전 5연패 위업을 아시안게임 금메달 확보를 위해 포기한 마장마술 최준상은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이 확실하다.

일찌감치 독일서 전지훈련을 하며 자신의 애마인 '댄싱보이'와 호흡을 맞춰왔고, 아시안게임 일정에 맞춰 전국체전에는 다른 말을 타고 출전했을 정도로 욕심을 내고 있다.

한국최고의 '몸짱' 김명훈은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며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이름을 알린 근육맨으로 금 을 기대하고 있다. 복근과 팔 근육이 세계선수권 출전자들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상 110m 허들의 박태경은 이미 아시아에서 알려진 선수. 중국과 2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박태경은 일본전지 훈련 등을 통해 허들을 넘는 기술과 순발력을 보강해 이번에는 반드시 금빛 질주를 펼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외에도 사이클 여자 개인도로에 출전하는 유진아(나주시청)는 소년체전부터 금메달을 휩쓸며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다.

이번대회 성적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또한 하키에는 남자부 장종현(조선대)과 여자부 박영순·김보미·정진옥(이상 목포시청)이 출전해 광주·전남의 명예를 걸고 싸운다.

아시안게임 일정때문에 제87회 전국체전에서 노메달의 불명예를 감수한 이특영은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명예를 회복한다는 일념으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은 각각 17명(임원 1명, 선수 16명), 33명(임원 4명, 선수 2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끝〉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3일(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8강전(14 : 00·KBS2)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인 결선(14 : 00·KBS SKY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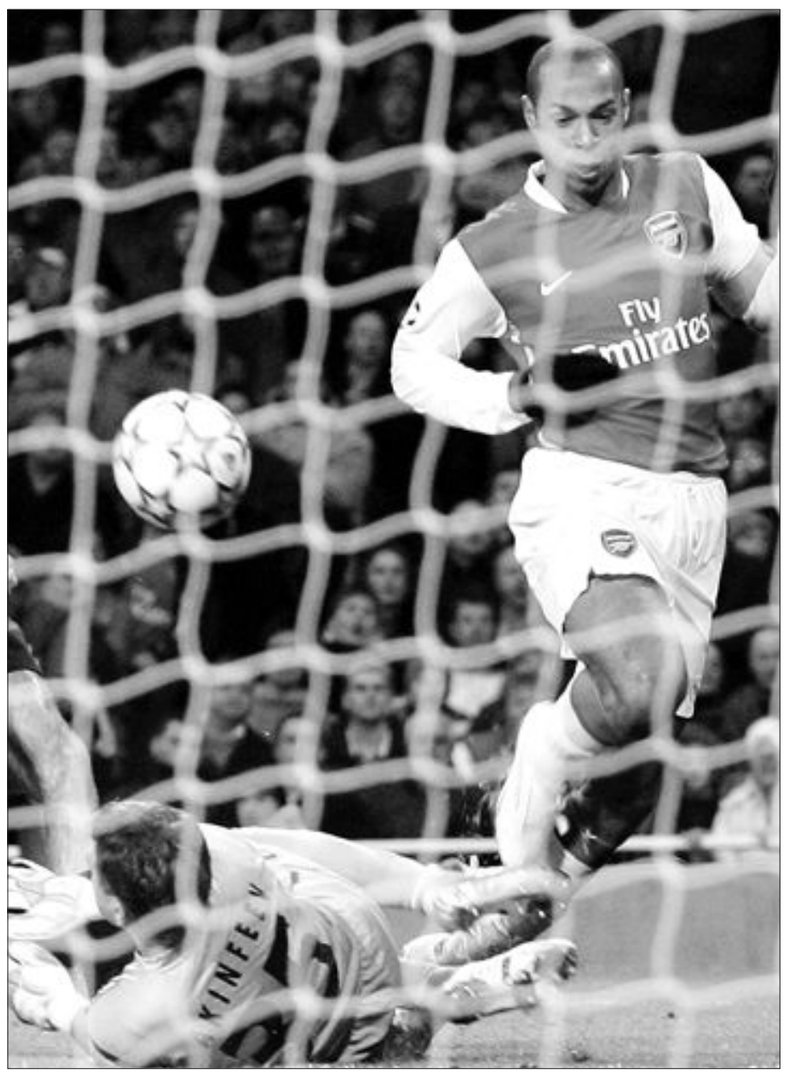
▲대통령배 전국 유도선수권대회(14 : 10·KBS1)

▲FIVE 세계 여자배구 선수권〈대만-한국〉(12 : 50·Xports), 〈코바-이집트〉(15 : 50·Xports)

▲프로농구〈KT&G-전자랜드〉(18 : 50·Xports)

4일(토)

▲PGA투어 더 투어 챔피언십 2R(02 : 00·SBS스포츠)



골키퍼에 막힌 앙리 슛 2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G조 4차전 아스날FC와 CSKA모스크바의 경기에서 아스날의 티에리 앙리가 슛을 시도했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모습. 이날 경기는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

전남, PO행 '실낱 희망'

자력진출 불가…서울이 가장 유리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가 오는 5일 후기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벌인다.

전·후기 우승팀 성남 일화와 수원 삼성,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가 플레이오프행을 결정지었지만 남은 한 팀은 이날 최종전에서 가려진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팀은 서울과 울산, 전남.

서울은 통합 승점 36점, 울산은 35점으로 1점 차이다. 서울은 경남FC와, 울산은 포항과 각각 홈경기를 치른다.

일단 유리한 건 서울. 자력 우승이 불가능한 울산은 포항을 잡고 서울이 경남과 비기거나 패하는 경우를 기다려야 한다.

울산이 포항과 비기면 서울은 경남에 패하더라도 골득실차(서울 +8, 울산 0)에서 크게 앞서 있어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된다.

반면 서울에 승점 3점이 뒤져 있고 골 득실도 '5골' 차를 보이고 있는 전남은 대전에 2골 이상으로 이긴 뒤 서울이 경남에 3골차로 패하고, 울산도 포항에 비기거나 패해야만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

전남은 이날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서 홈 팬들에게 멋진 골 퍼레이드를 선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11위 광주 상무도 이날 같은 시간 광주월드컵 경기장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서 대구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한편 광주는 이번 홈 폐막전을 '스폰서 데이'로 정하고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무료입장권은 광주은행 전 지점과 광주월드컵경기장 북문 히딩크 매점에서 배포한다.

또 이번 경기를 끝으로 오는 17일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정경호와 박요셉, 박용호, 정윤성 등 총 21명이 제대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축구시합 前 2㎞ 전력질주 경기 결과는?

'별들의 무대'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러시아 대표로 출전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선수단.

이 팀 선수들은 지난 1일(한국시간) 모스크바 시내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밀란(이탈리아)과 D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다.

경기장에는 모처럼 열리는 빅 매치를 보기 위해 무려 9만 명의 대관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홈구장이라고 여유있게 출발한 선수단이 경기 시작 직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기장 주변에서 잇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독한 정체를 빚는 바람에 선수단을 실은 버스가 꼼짝없이 서버린 것.

UEFA 참가 모스크바팀

경기장 이동 중 교통 체증

선수들 버스 내려 달리기

인터밀란에 결국 0-1 패

마침 주변에 있던 서포터스들이 "우리도 3시간30분이나 도로에 갇혀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경기 시간에 늦어 몰수패를 당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선수들은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경기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선수들을 알아본 뒤 표도 받지 않고 열차에 태웠다. 가까운 역에 내린 선수들은 부리나케 스타디움으로 뛰었다. 2㎞나 되는 거리였지만 몰수패라는 망신을 염두에 둔 선수들은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외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선수단은 교실에 지각한 학생들이 들어온 것처럼 스타디움 입구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숨고를 틈도 없이 시작된 경기.

모스크바는 59초만에 인터밀란의 아르헨티나 출신 스트라이커 훌리오 크루스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았고 그게 바로 결승골이 됐다. 홈 관중의 성원을 등에 업고 반격을 펼쳐봤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